

# 자기표현적 글쓰기의 교육 방안 연구

## — 2015 교육과정과 ‘화법과 작문’ 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윤금준 청명고등학교 교사



- I. 서론
- II. 자기표현적 글쓰기에 관한 교육과정 분석
- III. 자기표현적 글쓰기에 관한 교과서 분석
- IV. 자기표현적 글쓰기의 교육 방안 모색
- V. 결론

## I. 서론

2015 교육과정(교육부, 2015, 이하 2015 교육과정)에서 작문은 글을 통해 생각이나 느낌, 경험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행위로 정의되며, 효과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며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화법과 작문 과목의 목표이다. 이렇듯 글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 경험을 표현하는 것, 즉 효과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은, 쓰기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의 시작이자 쓰기 교육의 지향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쓰기 교육은 글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경험을 표현하는 쓰기 행위의 본질에 주목하기보다는, 의사소통 중심의 쓰기 전략을 익히는 인지적 기능을 더 중시해 왔다. 그 결과 쓰기 경험의 축적이 오히려 학생들의 쓰기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는 문제를 낳기도 하였다. 교육과정에서 쓰기 교육의 목표가 쓰기 능력의 신장이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겠으나, 쓰기 교육의 궁극적 목표이자 쓰기 능력의 완성은 바람직한 쓰기 태도를 갖추어 쓰기를 즐겨 하는 평생 필자로 성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기표현적 글쓰기는 앞서 밝힌 쓰기 행위의 본질에 가까운 글쓰기라

할 수 있으며, 자신의 경험과 정서 등을 소재로 한 글쓰기를 통해 자기 이해와 정서적·심리적 성숙을 도모하기 위해 쓰는 글을 말한다.<sup>1)</sup> 자기표현적 글쓰기는 Britton, et al.(1975)이 글쓰기를 의사소통적 글쓰기, 자기표현적 글쓰기, 문학적 글쓰기로 분류하면서 나타난 개념으로, 형식적으로 자유롭고 표현에서도 엄격한 제약이 없는 글쓰기라 할 수 있다.

김미란(2009: 15)은 자기표현을 18세기 후반에 나타난 독일의 표현주의와 관련지어 설명하였는데, 자기 자신을 주제화하는 글쓰기를 자기표현적 글쓰기로 보았다. 최숙기(2007: 2)는 자기표현 글쓰기를 “필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의사소통하고 탐색하는 것, 어떤 대상에 대한 자신만의 의견을 떠올리는 것, 혹은 세상에 대한 자기만의 반응을 표출하는 것 등을 주요한 목적으로 삼아 글을 쓸 때 나타나는 글쓰기 유형”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심선옥(2016: 367)은 성찰적 글쓰기, 치유적 글쓰기, 자기표현 글쓰기의 특성을 비교하였으며, “자기표현 글쓰기는 자신의 경험과 생각과 느낌을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여 자신의 존재 의미를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글쓰기의 제재가 자기 자신일 경우 여타의 글쓰기 형식이나 관습의 제약이 없는 자유로운 글쓰기”라고 정의한 바 있다.

자기표현적 글쓰기를 통한 정서적·심리적 성숙과 자아 성장의 경험은 바람직한 쓰기 태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쓰기의 생활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자기표현적 글쓰기는 평생 필자로 성장하게 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학생들에게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고 조율할 수 있는 계기를

---

1) 자기표현적 글쓰기는 표현적 글쓰기, 자기표현 글쓰기 등으로 명명되기도 하나, 이 연구에서는 2015 교육과정 화법과 작문 과목에서 사용된 용어를 따라 자기표현적 글쓰기로 표기하였으며, 정서 표현의 글과 성찰하는 글이 이에 해당된다. 자기표현적 글쓰기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는 2015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2007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07, 이하 2007 교육과정)에서 밝힌 자기 성찰을 위한 글쓰기의 개념과 김미란(2009), 심선옥(2016), 최숙기(2007) 등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교육적 함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자기표현적 글쓰기는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용어나 체계가 변경되기도 하면서 명확한 체계가 구축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전 교육과정과 관련된 자기표현적 글쓰기 연구는 진행된 바 있으나 2015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자기표현적 글쓰기의 양상을 고찰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2022 교육과정의 개정을 앞둔 시점에서, 교육과정에 나타난 자기표현적 글쓰기의 양상에 대한 새로운 탐색이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교육적 함의가 큼에도 불구하고 정보 전달이나 설득을 위한 글쓰기와 같은 의사소통 목적의 쓰기에 비해, 자기표현적 글쓰기의 교육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충분히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재기(2008: 186)는 작문 연구의 동향과 과제를 고찰하면서 작문 교육의 목표와 가치를 필자의 성숙에 두고 있는 표현주의 접근법을 지향하는 연구를 찾기 어려움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원진숙(2010: 1)은 작문 교육 분야의 연구가 주로 독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사소통 목적의 쓰기 차원에 집중되어 있어, 필자의 긍정적 정서를 강화하고 바람직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자기표현적 쓰기와 관련된 연구가 부족함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자기표현적 글쓰기에 관한 연구로는 먼저 2009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12, 이하 2009 교육과정)<sup>2)</sup>와 관련하여 자기표현적 글쓰기의 양상을 탐색한 연구가 있다. 김정란(2014)은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분석하여 자기표현적 글쓰기의 지도 방향을 모색하였으나 구체적인 지도의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이정찬(2017)은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에 나타난 자기표현 글쓰기 교육의 양상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자기표현적 글쓰기와 관련된 교육 방법에 대한 논의로는, Kath-

---

2) 2009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9년 12월에 처음 총론과 국어과 선택 교육과정 이 고시된 이후 2012년까지 부분 수정 고시되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이를 2009 교육과정으로 표기하였으며, 이는 2009 총론에 따라 2012년에 고시한 국어과 교육과정을 지칭한다.

leen(1990/2006)이 저널 쓰기 기법을 응용 개발하여 여러 글쓰기 방법을 소개하였으며, 이수진(2016)은 쓰기치료 기법을 활용한 표현적 쓰기 활동으로 보내지 않는 편지쓰기, 저널 쓰기, 자전적 이야기쓰기를 제안한 바 있다.

자기표현적 글쓰기의 효과와 관련된 연구로는, 원진숙(2010)이 삶을 주제로 한 자기표현적 쓰기 경험이 이주 여성의 자아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으며, 김윤경(2015)은 대학작문에서 감각적 글쓰기를 활용한 자기표현 글쓰기 교과운영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처럼 자기표현적 글쓰기는 다양한 쓰기 상황에서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자기표현적 글쓰기의 구체적인 교육 방안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는 교육과정의 변천에 따른 자기표현적 글쓰기의 양상과 2015 교육과정 교과서에 구현된 자기표현적 글쓰기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자기표현적 글쓰기의 교육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공통과목인 국어에서는 쓰기 외에도 다양한 하위 영역이 포함되어 기술되므로, 쓰기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는 선택 과목 작문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으며, 이를 위해 먼저 5차 교육과정(문교부, 1988, 이하 5차 교육과정)에서부터 2015 교육과정까지 자기표현적 글쓰기와 관련된 작문 교육과정의 변화 양상을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2015 교육과정 화법과 작문 교과서에 나타난 자기표현적 글쓰기의 양상을 공시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Jones, et al.(1987)에서의 지식의 유형에 따라 자기표현적 글쓰기의 학습 요소를 재구조화하여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하였다. 이를 통해 자기표현적 글쓰기의 교육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앞으로 개정될 2022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II. 자기표현적 글쓰기에 관한 교육과정 분석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작문이 선택 과목으로 설정된 것은 5차 교육과정부터이다. 4차 교육과정(문교부, 1981)까지는 국어II 과목의 하위 내용으로 작문이 구성되어 있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5차 교육과정 이후부터 2015 교육과정까지 작문 과목에서 자기표현적 글쓰기는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1>은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중심으로 자기표현적 글쓰기의 양상을 정리한 것이다.

<표 1>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른 자기표현적 글쓰기의 양상

| 시기                                 | 과목 | 항목                    | 내용  |
|------------------------------------|----|-----------------------|---|
| 5차<br>교육과정<br>(1987) <sup>3)</sup> | 작문 | .                     | .   |
| 6차<br>교육과정 <sup>4)</sup><br>(1992) | 작문 | 가. 내용 체계<br>3) 작문의 실제 | (라) <b>친교 및 정서 표현을 위한 글쓰기</b> <sup>5)</sup><br>① <b>편지, 일기, 감상문</b> 을 쓴다.   |
| 7차<br>교육과정<br>(1997)               | 작문 | 가. 내용 체계<br>작문의 실제    | (다) 정서 표현을 위한 글쓰기 <sup>6)</sup><br>① 작문의 원리와 전략에 관한 지식을 활용하여 정서 표현을 위한 글을 쓴다.<br>② 다양한 작문 과제에 대하여 <b>일기, 기행문, 감상문이나 문학성이 나타나는 글</b> 을 쓴다. |

- 3) 한 차수 안에서 교육과정이 여러 차례 부분 개정된 경우가 있지만 5차 교육과정부터 7차 교육과정은 처음 고시된 연도만을 표기하였다.
- 4) 6차 교육과정은 교육부에서 1992년에 고시한 교육과정을, 7차 교육과정은 교육부에서 1997년에 고시한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 5) 국어과 교육과정에 대한 인용문의 강조 표시는 연구자 임의로 표기한 것으로 이하 모든 인용문의 강조 표시 역시 연구자가 임의로 표기한 것임을 밝힌다.
- 6) 7차 교육과정에서는 가. 내용 체계를 작문의 이론과 작문의 실제로 분리하여 기술하였으며, 작문의 실제에서는 정서 표현을 위한 글쓰기와 친교를 위한 글쓰기를 분리하여 제시하였다.

|              |           |                                    |   |
|--------------|-----------|------------------------------------|---|
| 2007<br>교육과정 | 작문        | 가. 내용 체계<br>글의 유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br/>정보 전달, 설득, 사회적 상호 작용, <b>자기 성찰</b>, 학습</li> </ul>   |
|              |           | 나. 세부 내용<br>(3) 글의 유형              | <p>(라) <b>자기 성찰을 위한 글쓰기</b></p> <p>① 작문의 원리와 전략에 관한 지식을 활용하여 자기 성찰을 위한 글을 쓴다.</p> <p>② 다양한 작문 과제에 대하여 <b>일기, 감상문, 수필, 단상, 회고문</b> 등의 글을 쓴다.</p>                         |
| 2009<br>교육과정 | 화법과<br>작문 | 가. 내용 체계                           | <p><b>자기표현</b>과 사회적 상호 작용<sup>7)</su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사소통과 <b>자아 인식</b></li> <li>• 의사소통과 대인 관계</li> <li>• <b>자기표현</b>의 전략과 태도</li> </ul> |
|              |           | 나. 교수·학습 운용                        | <p>(2) 화법과 작문 활동의 과정에서 <b>자기 성찰적 활동을 강조</b>하여 <b>인성 교육적 측면을 강조</b>하고, 창의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p>  |
| 2015<br>교육과정 | 화법과<br>작문 | 가. 내용 체계<br>영역                     | <p>작문의 원리와 실제<sup>8)</su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정서 표현의 글</b>(진정성)</li> <li>• <b>성찰하는 글</b>(체현의 기록)</li> </ul>                                |
|              |           | 나. 성취기준<br>(다) 교수·학습<br>방법 및 유의 사항 | <p>… 학습자의 말과 글에 드러나는 자아 개념을 살펴보고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 <b>일기나 수필 등의 자기표현적 글쓰기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자아가 성장하는 체현을 하게 한다.</b></p>                                      |

5차 교육과정의 경우,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자기표현적 글쓰기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6차 교육과정의 가. 내용 체계에서 처음으로 친교 및 정서 표현을 위한 글쓰기를 작문의 실제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7차 교육과정에서는 이를 분리하여 정서 표현을 위한 글쓰기로 제시하였다. 이후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서도 자기표현적 글쓰기와 관련된 용어나 체계는, 자기 성찰을 위한 글쓰기, 자기 표현과 사회적 상호 작용 등으로 여러 차

7) 2009 교육과정의 가. 내용 체계에서는 이 외에 화법과 작문의 본질, 정보 전달, 설득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기표현과 사회적 상호 작용에 대한 성취기준 해설을 살펴보면, 이에 해당하는 글의 유형으로 감상문이나 수필, 회고문을 제시하였다.

8) 2015 교육과정의 작문의 원리와 실제에서는 이 외에 정보를 전달하는 글, 소개하는 글, 보고하는 글, 설득하는 글, 비평하는 글, 건의하는 글, 친교 표현의 글을 제시하였다.



레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정보 전달, 설득이라는 작문의 목적은, 6차 교육과정에서 정보 전달, 논증 및 설득이라고 제시한 이후 7차 교육과정에서부터 2015 교육과정까지 용어의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자기표현적 글쓰기와 관련된 교육과정의 용어와 체계의 변화는, 자기표현적 글쓰기가 정보 전달이나 설득을 위한 글쓰기에 비해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확실히 정립되지 못했음을 보여 주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나타난 글의 종류를 살펴보면, 자기표현적 글쓰기와 관련한 용어는 변화하였으나 그 예로 제시된 글의 종류는 대부분 일기나 감상문, 수필 등으로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사례로 제시된 글의 종류는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자기표현적 글쓰기와 관련된 용어나 체계는 교육과정의 변천에 따라 수시로 변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007 교육과정은 다른 교육과정에 비해 자기표현적 글쓰기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자기 성찰적 요소를 강조한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여러 면에서 자기표현적 글쓰기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다. 먼저 글의 유형을 정보 전달, 설득, 사회적 상호 작용, 자기 성찰, 학습의 목적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는데, 이전의 교육과정과 달리 자기 성찰을 위한 글쓰기를 새로운 글의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1) 지식 (라) 작문의 기능과 가치 '① 자기성찰 과정으로서의 작문의 특성을 안다.'와 같이 자아 성찰 과정으로서의 작문의 기능과 가치를 밝히고 있다. 이는 작문의 과정을 통해 필자가 자신에 대해 고민하고 성찰할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며, 자아 성찰이 작문의 중요한 가치임을 밝힌 것이다. 이를 참고할 때 자기 성찰을 위한 글쓰기를 포함하는 자기표현적 글쓰기는 자아 성찰이라는 작문의 가치를 실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글쓰기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2007 교육과정의 해설을 살펴보면, 자기 성찰을 위한 글쓰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라) 자기 성찰을 위한 글쓰기

**자기 성찰을 위한 글은 글쓰기를 통해 자기 이해에 이르고,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함으로써 정서적·심리적 성숙을 도모하기 위해 쓰는 글이다.** 필자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글을 쓰는 자아와 글을 쓰는 자아를 지켜보는 자아로 분리되는 경험을 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현재 경험과 정서는 어떠하고, 이런 경험, 정서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차분하게 살피게 된다. **이러한 살핌의 과정에서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돌보게 되며, 위로하게 된다.**

**다른 종류의 글은 필자나 독자의 요구 분석, 독자를 포함한 다양한 맥락의 고려 등과 같은 수사적 전략 등을 강조한다. 그러나 자기 성찰의 글은 이러한 수사적 기능·전략보다는 체험의 진솔한 표현을 중시한다.** 이러한 진솔한 표현 속에 다양한 성찰의 계기가 포함되어 있다.

2007 교육과정 해설에 제시된 자기 성찰을 위한 글쓰기의 정의와 기능, 방법은 앞으로 자기표현적 글쓰기 교육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자기 성찰을 위한 글쓰기를 포함하는 자기표현적 글쓰기의 목적은 정체성 형성 및 정서적·심리적 성숙에 있으며, 이러한 글쓰기를 통해 필자는 자기 이해와 성숙, 심리적 안정을 경험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작문 과목에서의 자기표현적 글쓰기가 치유적 글쓰기의 기능을 포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Pennebaker(2004/2007)에 따르면, 치유적 글쓰기는 정신 건강 및 정서 안정을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글쓰기 활동을 의미한다. 그리고 박영민(2015: 44)은 치유적 글쓰기가 의사소통 글쓰기에 대한 대안적 글쓰기로써 국어교육의 실천적 국면을 다채롭게 이끌어 갈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의미 구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인지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으므로 영역 통합적 쓰기 활동이나 쓰기 부진을 위한 프로그램에도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자기표현적 글쓰기를 통한 치유적 글쓰기로의 확장이 이루어질 경우, 학생들의 쓰기 경험은 긍정적 정서의 함양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07 교육과정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자기 성찰을 위한 글쓰기가 다른 종류의 글에 비해 독자의 요구 분석 및 독자를 포함한 다양한 맥락의 고려에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2007 교육과정이 내용 체계를 재구조화하여 기존의 태도 범주를 삭제하고 맥락이라는 새로운 범주를 설정함으로써 맥락에 대한 교육을 강조한 교육과정임을 고려할 때에도 특이한 점이라 할 수 있다. 즉 자기표현적 글쓰기는 자신의 내면에 주목하는 글쓰기로서 독자보다는 필자가 중심이 되어야 함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2009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기존의 ‘화법’과 ‘작문’이 ‘화법과 작문’이라는 하나의 과목으로 통합되었으며,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성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표현’이라는 용어가 제시되었으며, 2007 교육과정과 달리 자기표현과 사회적 상호 작용을 하나의 내용 체계로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된 성취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자기표현과 사회적 상호 작용을 위한 작문-

(30) 생활 속의 체험이나 깨달음을 글로 씀으로써 삶의 체험을 기록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습관을 기른다.

일상의 삶을 성찰해 보고 여기에서 얻은 깨달음을 글로 표현하는 능력과 태도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하다. **일상의 삶을 섬세하게 관찰함으로써 의미를 발견하고 여기에서 발견한 의미를 기록해 두고 작품으로 산출하는 습관과 태도를 가지다 보면 자신의 삶에 대해 좀 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감상문이나 수필, 회고문 형태의 글을 써 보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관조해 보고 **긍정적 정서를 기르며 이를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써 공동체의**

**글쓰기 문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31) 맥락을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품격 있는 표현으로 자기를 효과적으로 소개하는 글을 쓴다.

입학이나 취업 등 자기소개서를 써야 하는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목적에 맞게 자기소개서를 쓰려면 그러한 글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2009 교육과정에서는 생활 속의 체험이나 깨달음을 글로 쓰는 활동을 자기표현과 상호 작용을 위한 작문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체험의 기록을 통해 삶을 성찰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제시함으로써 쓰기를 습관화하기 위한 노력을 교육과정에 담아내기 시작하였다.

내용 체계에서는 자기표현과 상호 작용을 위한 작문이 하나로 묶이면서 (31)과 같이 자기소개서와 관련된 성취기준이 제시되었는데, 여기서의 자기소개서는 입학이라 취업을 고려한 것으로 자기표현적 글쓰기와는 글의 목적이 근본적으로 상이한 글이라 할 수 있다. 즉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기 위해 서라기보다는 입학이라 취업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독자에게 자신을 효과적으로 보여 주기 위한 글이므로, 2009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자기소개서는 일반적인 자기표현적 글쓰기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2009 교육과정에서 자기표현과 사회적 상호 작용을 하나의 내용 체계로 구성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후 2015 교육과정에서 자기소개서는 소개하는 글의 하위 요소로 제시되어, 자기표현적 글쓰기와는 다르게 범주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09 교육과정은 6. 평가 항목에서 ‘실제 담화 또는 글을 생각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주안점을 두되 인지적·정의적 능력을 골고루 평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라고 밝히, 작문의 태도적 측면이라 할 수 있는 정의적 능

력을 새롭게 강조하였다. 그리고 자기표현과 사회적 상호 작용을 위한 화법과 작문에서는 생활 경험을 즐겨 쓰는 태도를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생활 경험을 즐겨 쓰는 자기표현적 글쓰기의 활용이 쓰기 생활화의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즉 자기표현적 글쓰기는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글을 즐겨 쓸 수 있는 필자로 성장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2009 교육과정의 특징 중 하나는, <표 1>과 같이 화법과 작문 활동 과정의 자기 성찰적 활동을 통해 인성 교육적 측면을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는 화법과 작문이 의사소통 행위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자기표현적 글쓰기 활동은 인성 교육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2015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2015 교육과정은 핵심 역량의 함양이라는 변화를 새롭게 시도한 교육과정으로, <표 1>과 같이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자기표현적 글쓰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일기나 수필 등이 이에 해당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작문의 원리와 실제에서 자기표현적 글쓰기라 할 수 있는 정서 표현의 글과 성찰하는 글을 제시하였다. 자기표현적 글쓰기와 관련된 성취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화작01-02] 화법과 작문 활동이 **자아 성장**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함을 이해한다.

[12화작03-08] 대상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바탕으로 하여 **정서를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을 쓴다.

[12화작03-09] 일상의 체험을 기록하는 습관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글**을 쓴다.

[12화작01-02]의 해설을 살펴보면, 이 성취기준은 화법과 작문을 통해 긍정적 자기 정체성을 함양하고 타인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어 건강한 삶과 공동체의 발전을 추구하는 태도를 기르기 위해 설정되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작문의 과정이 자아 성장과 자기 정체성 함양에 기여할 수 있음을 밝힌 것으로, 자기표현적 글쓰기는 이를 함양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12화작03-08]의 경우, 일상에서 얻게 된 생각이나 느낌 등을 진솔하게 표현함으로써 독자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줄 수 있음을 이해하며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쓰는 태도를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렇듯 독자를 포함한 작문 맥락에 대한 고려는 글쓰기 상황에서 배제하기 어려운 요소이지만, 자기표현적 글에서 강조해야 할 요소인지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자기표현의 진정성과 내면의 탐색을 위해서는 독자보다 필자에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라 할 수 있다.

이영호(2012: 86)는 이제까지의 쓰기 교육이 독자를 고려한 의사소통 중심의 패러다임에 치중하였으며, 자신에 대한 관심과 표현 욕구가 큰 청소년기에는 필자의 내면을 향하는 글쓰기가 교육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렇듯 자신의 내면에 주목하여 글을 쓸 때, 필자는 쓰기 과정을 통해 자신을 좀 더 객관적으로 관찰하게 되며, 이를 통해 자아를 발견하고 정서를 치유하는 힘을 얻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보 전달이나 설득을 위한 글쓰기, 친교 표현의 글과는 달리 자기표현적 글쓰기의 경우에는 독자에 대한 고려보다 필자의 내면에 대해 주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7 교육과정에서 다른 유형의 글의 경우에는 필자나 독자의 요구 분석, 독자를 포함한 다양한 맥락의 고려 등과 같은 수사적 전략 등이 강조되지만, 자기 성찰의 글은 이러한 수사적 기능·전략보다는 체험의 진솔한 표현이 중시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2015 교육과정은 2009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화법과 작문의 학습 목

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계획하고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화법과 작문 수업 활동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성찰하고 학습자 간에 상호 소통하는 가운데 인성을 기르도록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이전 교육과정에 이어 인성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정서 표현의 글, 성찰하는 글과 같은 자기표현의 글을 통해 인성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렇듯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자기표현적 글쓰기가 통시적으로 어떤 특징을 보이며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종합해볼 때, 먼저 자기표현적 글쓰기에 대한 교육과정의 용어 확립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기표현적 글쓰기는 자아 성찰이라는 작문의 가치를 실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글쓰기로서, 쓰기의 생활화와 인성 교육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자기 이해, 심리적 안정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치유적 글쓰기의 기능을 포함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개정될 2022 교육과정에서는 자기표현적 글쓰기의 용어와 체계가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자기표현적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함으로써 인성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심리적 안정을 통한 치유의 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글을 쓰는 습관이 형성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III. 자기표현적 글쓰기에 관한 교과서 분석

2015 교육과정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과정일 뿐만 아니라, 새로 개정될 2022 교육과정의 바탕이 된다. 이에 2015 교육과정의 자기표현적 글쓰기에 대한 내용이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구현되었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2015 화법과 작문 과목의 총 5종 교과서를 대상으로, 교과서에 나타

난 자기표현적 글쓰기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각 교과서에서 자기표현적 글쓰기에 해당하는 단원을 분석하였으며, 일기나 수필 등과 같은 자기표현적 글 중에 어떤 문종에 주목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학습 활동에 제시된 제재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자기표현적 글쓰기의 학습 요소 중 어떤 요소에 주목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교과서별 소단원 원리 탐구, 소단원 이론 등에서 제시한 개념이나 이론 설명 중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학습 요소<sup>9)</sup>를 분석하였다. 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화법과 작문 교과서의 자기표현적 글쓰기 양상 분석

| 교과서 <sup>10)</sup> | 중단원                                   | 소단원                    | 제재              | 학습 요소   |
|--------------------|---------------------------------------|------------------------|-----------------|---|
| A                  | 2. 자아<br>성찰과 정서<br>표현                 | (2) 자신을<br>성찰하는 글쓰기    | 일기              | 일상의 체험을 기록하는 습관<br>삶을 성찰하는 글쓰기                                  |
|                    |                                       | (3) 정서를<br>표현하는 글쓰기    | 수필<br>감상문       | 정서의 진솔한 표현<br>대상에 대한 정서를 표현하는 글쓰기                               |
| B                  | 3.<br>자기표현과<br>사회적 상호<br>작용을 위한<br>작문 | (2) 정서를<br>표현하는 글      | 기행문<br>감상문      | 대상에 대한 정서를 표현하는 글의 특징<br><b>정서를 표현하는 글의 쓰기 과정</b>               |
|                    |                                       | (3) 성찰하는 글             | 수필<br>회고문       | 성찰하는 글의 의의<br>성찰하는 글의 유형<br><b>성찰하는 글의 쓰기 과정</b>                |
| C                  | 3. 사람을<br>이해하고<br>성찰하는 작문             | (2) 성찰과 정서<br>표현을 위한 글 | 감상문<br>일기<br>수필 | 핵심 질문: 성찰에서 얻은 생각이나<br>느낌을 감동적으로 <b>쓸 때는 어떤 점을<br/>고려해야 할까?</b> |

- 9) 각 교과서에서 소단원별로 구성된 개념, 이론 설명 중, 제시된 소재목을 중심으로 학습 요소를 분석하였다.
- 10) 2015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교과서 5종을 모두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순서는 출판사명을 ‘가나다’순으로 정렬하였다. A는 미래엔 교과서(민병곤·김정자·박재현·김수학·김성혜·윤다운, 2019), B는 비상 교과서(박영민·박형우·구자경·김명민·박경희·조성만, 2019), C는 지학사 교과서(이삼형·김창원·권순각·안혁·하동원·박찬용, 2019), D는 창비 교과서(이도영·김면수·김잔디·배현주·손범익·엄성신 외, 2019) 교과서, E는 천재 교과서(박영목·이재승·전은주·김형주·이세영·이혜진, 2019) 이다.



|   |                      |                  |    |  |
|---|----------------------|------------------|----|--|
| D | 3. 마음과 마음을 이어 주는 글쓰기 | (2) 정서를 표현하는 글쓰기 | 수필 | 정서를 표현하는 글의 개념과 특성<br><b>정서를 표현하는 글의 작성 방법</b>               |
|   |                      | (3) 성찰하는 글쓰기     | 일기 | 성찰하는 글의 개념과 특성<br><b>성찰하는 글의 작성 방법</b>                       |
| E | 4. 정서 표현과 성찰의 글      | (1) 정서를 표현하는 글쓰기 | 수필 | 정서를 표현하는 글의 유형<br>정서를 표현하는 글의 특성<br><b>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쓰는 과정</b> |
|   |                      | (2) 자기를 성찰하는 글쓰기 | 수필 |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글의 유형<br><b>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글을 쓰는 과정</b>             |

먼저 단원 구성을 살펴본 결과 B, D 교과서는 성취기준을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중단원을 설정한 후, 정서 표현의 글, 성찰하는 글 등을 각각의 소단원으로 구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A 교과서의 경우, 화법과 작문의 통합적 성격을 강조하여 자기표현이라는 학습 요소를 중심으로 중단원을 구성하였다. 즉 중단원 2. 자아 성찰과 정서 표현에, 화법에 해당하는 (1) 대화에서 자기표현하기와 작문에 해당하는 (2) 자신을 성찰하는 글쓰기, (3) 정서를 표현하는 글쓰기를 소단원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C 교과서는 성찰하는 글과 정서 표현의 글을 하나로 엮어, (2) 성찰과 정서 표현을 위한 글이라는 소단원을 구성하였다. E 교과서의 경우에는 4. 정서 표현과 성찰의 글이라는 중단원에서 정서 표현의 글과 성찰하는 글을 소단원으로 구성하였으며, 3. 소개와 친교의 글이라는 중단원에 자기를 소개하는 글과 친교 표현의 글을 소단원으로 구성하였다.

이렇듯 단원 구성의 체계는 교과서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는 교과서의 특징일 수도 있으나, 앞서 교육과정의 분석 결과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동안 자기표현적 글쓰기의 경우 정보 전달, 설득을 위한 글쓰기와 달리, 용어와 체계에서 다양한 변화를 거쳐올 정도로 명확한 체계가 구축되지 못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예를 들어 6차 교육과정에서는 친교 및 정서 표현을 위한 글쓰기로, 2009 교육과정에서는 자기표현과 사회적 상호 작용으로 명명되어 자기표현적 글쓰기는 다른 목적의 글쓰기와 함께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교육과정에서 자기표현적 글쓰기가 단일한 목적의 글쓰기로 체계를 자리 잡지 못한 것이, 2015 교육과정 교과서의 단원 구성에서 다양한 양상이 나타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학습 활동에 소개된 제재를 분석한 결과, 일기와 수필에 해당하는 제재가 가장 많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기와 수필은 자기표현적 글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으며, 2015 교육과정에서 자기표현적 글의 예로 제시된 바 있다. 이 외에 감상문이나 회고문이 교과서의 제재로 일부 활용되었는데, 이는 소단원에서 많은 제재를 다룰 수 없는 한계가 있으나 앞으로 다양한 제재를 활용하여 학습 활동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마지막으로 소단원의 개념, 이론 설명에 나타난 주요 학습 요소를 분석한 결과, 교과서별로 다소 상이하기는 하나 정서 표현의 글과 성찰하는 글의 특징이나 작성 방법 등을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A 교과서는 개념, 이론 설명에서 소제목으로 구성하지는 않았으나, 일상의 체험을 기록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한 질문의 예를 제시하였으며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쓰는 과정을 ‘대상 관찰하기’, ‘의미 발견하기’, ‘나의 정서 파악하기’, ‘진솔하게 표현하기’로 설명하였다. 또한 C 교과서는 핵심 질문을 제시하고 ‘알기’와 ‘하기’로 나누어 학습 요소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D 교과서의 경우, 성찰하는 글의 작성 방법으로 ‘일상을 섬세하게 관찰하기’,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태도를 통해 삶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기’, ‘깨달음이나 느낌이 잘 드러나도록 표현하기’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소단원별로 학습해야 할 개념이나 원리를 구체화하여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을 담아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단원별 학습 활동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자기표현적 글을 쓰기 위한 과정과 방법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바로 쓰기 활동으로 이어지는, 다소 범박한 학습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습 활동의 제재를 이해하기 위한 학습 활동은 자세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에 비해, 자기표현의 글을 직접 써 보는 학습 활동에서는 과정이 상세화되지

않고 ‘대상을 관찰하고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써 보자.’,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 책이나 영화 중 하나를 골라 감상문 써 보자.’ 등과 같이 학습 활동이 제시되는 경우가 나타났다. 이는 개념적인 설명이 실제 학습 활동으로 구체화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Jones, et al.(1987: 10)은 지식의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개념에 해당하는 ‘선언적 지식’, 방법이나 기능에 해당하는 ‘방법적 지식’, 언제 전략을 활용할 것인지에 해당하는 ‘조건적 지식’으로 범주화하였다.<sup>11)</sup> 2015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서는 자기표현적 글쓰기에 해당하는 학습 활동이 단계별로 상세화되어 있지 못하므로, 학생들이 방법적 지식이나 조건적 지식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 활동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자기표현적 글쓰기의 교육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자기표현적 글을 쓸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중요한 교수·학습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기표현적 글을 즐겨 쓰고 성장과 위로를 경험하며 사회에 나가서도 평생 필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기표현적 글을 쓰는 과정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학습 활동이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학습 활동에서 자기표현적 글쓰기의 소재가 되는 자신의 경험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학습 활동에서 ‘자신의 경험 중에서 인상 깊었던 경험’ 또는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 경험’ 등으로 진술된 자신의 경험에 부정적 경험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학습 활동을 구체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자신에게 부정적이었던 경험도 장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부정적 경험에 대해 서술함으로써 사건이나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어 필자가 새로운 깨달음과 위로를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쓰기 경험을 통해 부정적 경험이 정서적 위로와 치유의 경험으

---

11) 지식의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은 다양하나, 이도영(2013: 6)에서 국어과 교육 내용으로서의 ‘지식’의 성격을 분석하기 위해 제시한 바 있는 Jones, et al.(1987)의 분류 체계를 따랐다.

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기표현적 글쓰기의 소재를 확장하여 자기표현적 글쓰기가 치유적 글쓰기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을 구안할 필요가 있다.

#### IV. 자기표현적 글쓰기의 교육 방안 모색

자기표현적 글쓰기는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청소년기에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함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 19라는 거대한 외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교육 내적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학생들에게 자신을 내면을 돌아보고 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학생의 건강한 내적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른 자기표현적 글쓰기의 통시적 양상과 2015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 나타난 자기표현적 글쓰기의 특징을 분석해 본 결과, 교육과정에서는 자기표현적 글쓰기에 대한 용어가 명확히 확립되어야 하며, 교과서 개발 단계에서는 자기표현적 글쓰기의 과정이나 방법에 대한 학습 활동이 단계별로 상세화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먼저 자기표현적 글쓰기의 학습 요소를 구체적으로 재구조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유적 글쓰기로의 확장을 통한 자기표현적 글쓰기의 방법을 단계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교수·학습 모형(ODWH)을 구안하였다.

이를 위해 각 교과서에 나타난 자기표현적 글쓰기의 과정이나 방법, Desalvo(1999/2018), Pennebaker & Evans(2014/2019) 등의 연구 결과를 분석하여, 자기표현적 글쓰기에서 요구되는 학습 요소를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쓰기 과정에 해당하는 학습 요소로는 ‘관찰 → 의미의 발견 → 표현’의 단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Jones, et al.(1987: 10)에서

의 지식의 유형에 따라 자기표현적 글쓰기의 학습 요소를 ‘선언적 지식’, ‘방법적 지식’, ‘조건적 지식’으로 나누어 재구조화하였다.<sup>12)</sup>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자기표현적 글쓰기의 학습 요소

| 지식의 유형         | 학습 요소  |
|----------------|--|
| 선언적 지식<br>(개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표현적 글쓰기의 개념</li> <li>• 자기표현적 글쓰기의 목적</li> <li>• 자기표현적 글쓰기의 가치와 효과</li> <li>• 자기표현적 글쓰기의 유형</li> </ul> |
| 방법적 지식<br>(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경험과 대상 관찰하기<br/>↓</li> <li>• 경험과 대상에서 의미 발견하기<br/>↓</li> <li>•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기</li> </ul>              |
| 조건적 지식<br>(전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을 고려하여 자기표현적 글쓰기</li> <li>• 유형을 고려하여 자기표현적 글쓰기</li> <li>• 독자를 고려하여 자기표현적 글쓰기</li> </ul>               |

<표 3>에서 선언적 지식이란 자기표현적 글쓰기와 관련된 개념적 설명으로, 자기표현적 글쓰기의 개념, 목적, 가치와 효과, 유형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방법적 지식은 자기표현적 글을 쓰기 위해 알아야 할 방법이나 기능, 절차를 의미하며, 절차적 지식을 고려하여 ‘자신의 경험과 대상 관찰하기 → 경험과 대상에서 의미 발견하기 →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기’와 같이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조건적 지식은 목적, 독자 등의 작문 맥락을 고려하여 언제, 어떻게 선언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을 적절하게 활용할 것인가에 해당하는 학습 요소를 말한다.

자기표현적 글쓰기는 정보 전달이나 설득을 위한 글쓰기에 비해 다양한

12) 이소라·류수경(2021: 51)은 Jones, et al.(1987)에서 제시한 지식의 유형에 따라 쓰기 윤리로서의 ‘인용’ 교육 내용 요소를 구성하였다.

작문 맥락에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조건적 지식에 대한 학습 요소를 구체화하여 안내한다면, 내면의 안정을 돕는 치유적 글쓰기에서 사회적 의사소통을 위한 글쓰기로의 확장도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자에 대한 고려는 작문 맥락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자신의 내면을 치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한 독자를 상정하지 않은 경우 치유적 글쓰기로 이루어질 수 있고, 자신의 깨달음이나 성찰을 다수의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일 경우에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글쓰기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러한 방법적 지식과 조건적 지식을 바탕으로, 자기표현적 글쓰기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보여 주는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하였다. 이 모형은 ‘관찰(Observation) → 의미의 발견(Discovery of meaning) → 표현(Writing) → 기록의 습관(Habit of writing)’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록의 습관으로 만들어진 쓰기의 결과물이 다시 관찰의 대상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구안하였다. 쓰기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쓰기의 즐거움을 알고 이를 즐길 줄 아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므로, 자기표현적 글쓰기를 통해 경험한 치유의 힘과 내면의 성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록의 습관으로 인한 결과물이 관찰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지도하여 기록의 습관이 더 공고해질 수 있도록 이끌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모형은, 긍정적인 정서는 물론 자신에게 상처나 아픔을 주었던 부정적 정서의 경험에 대해서도 소재로 다룰 수 있도록 하여 치유적 글쓰기로의 확장이 가능하도록 구안하였다. Pennebaker & Evans(2014/2019: 159)는 치료를 위한 글쓰기의 방법으로 필자에게 개인적이며 중요한 것을 주제로 쓰는 표현적 글쓰기를 제안한 바 있다. 이 모형은 자기표현적 쓰기 경험을 바탕으로 쓰기를 통한 치유를 경험하고 건강한 자아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구안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자기표현적 글쓰기의 교수·학습 모형(ODWH)

| 단계                                 | 내용               | 교수·학습 활동   |
|------------------------------------|------------------|--|
| → 관찰<br>(Observation)              | 자신의 내면<br>바라보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기억되거나 상처가 되었던 다양한 경험과 내면 심리를 떠올린다.</li> <li>• 사진, 일기, 책 등 자신의 경험과 관련된 자료를 활용하여 기억을 활성화한다.</li> </ul> |
| ↓                                  |                  |  |
| ↑ 의미의 발견<br>(Discovery of meaning) | 삶에 대한 의미<br>발견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이 선택한 경험에 대해 성찰한다.</li> <li>• 성찰을 통해 삶 속에서의 새로운 의미와 깨달음을 발견한다.</li> </ul>                                     |
| ↓                                  |                  |  |
| 표현<br>(Writing)                    | 언어로<br>형상화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험을 통해 얻게 된 새로운 의미, 깨달음, 정서 등을 진솔하게 표현한다.</li> <li>• 쓰기의 과정을 통해 자신을 객관화한다.</li> </ul>                           |
| ↓                                  |                  |  |
| ← 기록의 습관<br>(Habit of writing)     | 공유하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쓰기 결과를 서로 공유한다.</li> </ul>  |
|                                    | 쓰기 경험<br>쌓아가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쓰기 결과를 누적하여 기록한다.</li> <li>• 쓰기 경험이 지속될 수 있도록 습관화한다.</li> </ul>   |

첫 번째 단계는 ‘관찰’로, 자신의 정서나 경험 등 자신을 둘러싼 일상을 섬세하게 관찰하는 단계이다. 이는 자신, 달리 말하면 자아의 내면을 바라보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자신과 관련된 정서나 경험을 새롭게 바라보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Erikson(1968)에 따르면, 청소년기에는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지 등 혼란스러운 발달 단계를 거치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자신을 깊이 있게 바라보고 관찰함으로써 자아를 인식하고 탐구하는 것은 인생의 혼란스러운 단계를 현명하게 지나갈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 단계는, 김준희(2010: 70)의 글쓰기 치유 과정에 따르면 기억의 활성화

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앞선 연구에서는 치유적 글쓰기의 방법과 효과를 밝히면서 글쓰기의 치유 과정을 4단계로 제시하였다. 그중 기억의 활성화는 심리적 외상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는 것으로, 이러한 기억을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끌어내는 일로 치유의 글쓰기는 시작된다고 보았다. 즉 부정적 경험이든 긍정적 경험이든 이를 객관적으로 마주하는 경험 자체가 이러한 경험을 바로 보게 함으로써 인식의 변화를 이끄는 시발점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자기표현적 글쓰기와 치유적 글쓰기의 단계는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치유적 글쓰기가 심리적 외상의 경험으로 제한된 협의의 의미를 지닌다면, 자기표현적 글쓰기는 이보다 다양한 경험이 가능한, 광의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찰의 단계는 자기표현적 글쓰기의 시작으로, 자신의 내면을 바라본 결과에서 글의 소재를 발견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의미의 발견’이다. 이는 관찰을 통해 발견한 자아의 모습이나 경험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깨달음을 얻는 단계를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는 성찰적 태도가 요구된다. 세 번째 단계는 ‘표현’으로, 이는 자신의 삶 속에서 찾은 새로운 의미에 대해 직접 쓰는 단계이다. 일상의 경험에서 얻는 깨달음이나 정서는 그 의미가 모호한 경우가 많으므로, 경험에서 얻은 의미를 언어로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미숙(1996: 137)은 글쓰기를 통해 경험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경험적 자아와 서술적 자아의 분리라고 보았다. 여기서 서술적 자아는 글을 쓰는 순간의 자아를 말하는 것으로, 언어 행위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새로운 관점에서 읽어내고 해석함으로써 스스로를 객관화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 단계는 김준희(2010: 71)의 글쓰기 치유 과정에서 사건의 객관화 및 재구조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사건의 객관화 및 재구조화는 일인칭 주인공이었던 사건을 관찰자의 시점에서 바라봄으로써 사건을 재구성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신과의 거리를 만들게 되며 심리적 외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았다. 쓰기 과정을 통한 객관화는 심



리적 외상에 대한 인식 변화의 계기는 물론, 사회에서 자신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탐색하고 자신을 객관화함으로써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표현’의 단계는 다시 언어로 형상화하는 과정과 쓰기 결과를 공유하는 과정으로 나뉜다. 자기표현적 글쓰기에서는 독자보다 필자가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므로, 앞서 재구조화한 자기표현적 글쓰기의 학습 요소 중 조건적 지식에 따라 쓰기 결과를 공유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기보다는 선택적이다. 예를 들어 부정적 경험에 대한 자기표현적 글쓰기가 진행된 경우 작문 맥락에 따라 공유하기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공유를 통한 감정의 공명으로 치유의 힘이 증폭될 수도 있지만, 이는 스스로가 원할 때 이루어져야 하며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치유의 힘은 형성될 수 있다.

Desalvo(1999/2018: 31)는 글쓰기란 사적인 것일 수도, 공유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영호(2014: 89)는 자기표현적 글쓰기가 치료, 성찰, 전달의 세 가지 방향에서 전개될 수 있다고 보았다. 공유하기는 이 중 전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sup>13)</sup> 만약 공유하기의 과정을 거친다면 서로의 경험과 깨달음을 존중하고 경청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필자에게 소통과 공감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공유하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쓰기 워크숍이나 모둠 활동 등을 통해 제한된 인원이나 유대감이 형성된 집단 내에서 공유하기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도 있다.

마지막은 ‘기록의 습관’으로, 자기표현적 글쓰기의 경험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 쓰기에 대한 즐거운 경험은 필생 필자로 성장하기 위한 시작이 될 수 있으며, 이러

---

13) 이영호(2014)는 자기표현적 글쓰기에서 정신적 상처의 치유를 목적으로 한 글쓰기는 내면세계를 중심 대상으로 삼고, 성찰의 글쓰기는 외적 세계와 자아와의 관련성에 주목하며, 자신을 전달하는 글쓰기는 의사소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외적 세계의 반응에 중심을 두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는 결국 자신에 대한 탐구와 발견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라고 보았다.

한 시작이 즐겨 쓰는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포트폴리오, 일기 등과 같이 자신의 글을 축적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기록의 습관으로 인한 결과물은 다시 자기표현적 글쓰기의 소재인 관찰의 대상으로 환류되어 습관이 공고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자기표현적 글쓰기는 쓰기를 통한 치유의 경험을 제공하며, 필자 자신을 객관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사회 속에서의 자아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탐색하고, 자신의 긍정적 모습을 발견함과 동시에 자신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우게 해 준다. 자기표현적 글쓰기의 학습 요소를 재구조화하여 이를 바탕으로 구안한 교수·학습 모형은, 자기표현적 글쓰기 활동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쓰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이끄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 V. 결론

쓰기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쓰기를 생활화하여 쓰기를 통해 위로를 받고 쓰기를 즐겨 할 수 있는 평생 필자로 성장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그동안의 쓰기 교육은 인지적 요소에 몰두하여 쓰기의 즐거움을 교육하지 못하였다는 자성적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쓰기 교육의 목적과 무관하지 않다. 자기표현적 글쓰기는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고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자아 성장과 인성적 교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자기표현적 글쓰기를 통한 정서적·심리적 성숙의 경험을 쓰기의 생활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즉 자기표현적 글쓰기는 평생 필자로 성장하게 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자기표현적 글쓰기와 관련된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내

용을 분석함으로써 자기표현적 글쓰기의 교육 방안을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5차 교육과정에서부터 2015 교육과정까지 자기표현적 글쓰기와 관련된 작문 교육과정의 변화 양상을 통시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기표현적 글쓰기에 대한 교육과정의 용어가 교육과정 변화에 따라 다르게 제시되고 있어, 용어와 체계의 명확한 정립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또한 2007 교육과정을 참고할 때, 자기표현적 글쓰기는 자아 성찰이라는 작문의 가치를 실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글쓰기로서 쓰기의 생활화와 인성 교육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자아 성찰과 심리적 안정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치유적 글쓰기의 기능이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개정될 2022 교육과정에서는 자기표현적 글쓰기의 용어 및 체계의 확립과 함께, 학생들이 자기표현적 글쓰기를 통해 치유의 힘을 경험하고 자신을 성찰함으로써 인성적으로 성장하여 쓰기를 생활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2015 교육과정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교과서에 나타난 자기표현적 글쓰기의 공식적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자기표현적 글쓰기의 교육 방안을 탐색하였다. 먼저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자기표현적 글을 쓰는 과정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학습 활동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쓰기 경험을 통해 부정적 경험의 상처가 정서적 위로와 치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기표현적 글쓰기의 소재를 확장하여 치유적 글쓰기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을 구안할 필요가 있다.

이에 자기표현적 글쓰기의 과정이나 방법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자기표현적 글쓰기의 학습 요소를 Jones, et al.(1987: 10)의 지식 유형에 따라 선언적 지식, 방법적 지식, 조건적 지식으로 나누어 재구조화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치유적 글쓰기로의 확장을 통한 자기표현적 글쓰기의 방법을 단계적으로 제시하는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하였다. 이 모형은 관찰 → 의미의 발견 → 표현 → 기록의 습관의 단계로 구성되며, 기록의 습관으로 만들어진 쓰기의 결과물이 다시 관찰의 대상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구안

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관찰로, 이는 자신의 정서나 경험 등 자신을 둘러싼 일상을 섬세하게 관찰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의미의 발견으로, 이는 관찰을 통해 발견한 자아의 모습이나 경험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깨달음을 얻는 단계를 말한다. 세 번째 단계는 표현으로, 자신의 삶 속에서 찾은 새로운 의미에 대해 직접 쓰는 단계이며, 언어로 형상화하는 과정과 쓰기 결과를 공유하는 과정으로 나뉜다. 마지막은 기록의 습관으로, 자기표현적 글쓰기의 경험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이다.

Pinar(1975: 10)은 학교 교육 문제의 주요 원인이 주관성 혹은 참자아의 상실에 있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의 출발점을 안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서전적 글쓰기 방법을 제안한 바 있다.<sup>14)</sup> 이는 그동안의 학교 교육이 학생들과 떨어져 있는 객관적 지식의 전달에 주목했던 것에서 탈피하여 학생의 주관적 내면에 주목해야 함을 의미한다. 자기표현적 글쓰기는 학생의 내면에 주목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자아의 탐색과 정서적 회복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위한 길이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자기표현적 글쓰기의 양상을 고찰함으로써 자기표현적 글쓰기의 교육 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앞으로 자기표현적 글쓰기의 실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향후 개정될 2022 교육과정에서 자기표현적 글쓰기가 분명히 자리매김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자기표현적 글쓰기가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본 논문은 2022.01.31. 투고되었으며, 2022.02.16. 심사가 시작되어 2022.03.09. 심사가 종료되었음.

14) 한혜정(2013)은 Pinar(1975)가 제안한 자서전적 방법을 소개하면서 자서전적 방법의 필요성과 가치, 적용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 참고문헌

### [교육과정 및 교과서]

- 문교부(1981), 『고등학교 교육과정(제442호)』, 서울: 문교부.  
문교부(1988), 『고등학교 교육과정(제88-7호)』, 서울: 문교부.  
교육부(1992), 『고등학교 교육과정 (1)』, 서울: 교육부.  
교육부(1997), 『국어과 교육과정(제1997-15호)』, 서울: 교육부.  
교육과학기술부(2007), 『국어과 교육과정(제2007-79호)』,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2012), 『국어과 교육과정(제2012-14호)』,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부(2015), 『국어과 교육과정(제2015-74호)』, 세종: 교육부.  
민병곤·김정자·박재현·김수학·김성혜·윤다운(2019),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서울: 미래엔.  
박영목·이재승·전은주·김형주·이세영·이혜진(2019),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서울: 천재.  
박영민·박형우·구자경·김영민·박경희·조성만(2019),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서울: 비상.  
이도영·김면수·김잔디·배현주·손범익·엄성신·윤금준·장창중(2019),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서울: 창비.  
이삼형·김창원·권순자·안혁·하동원·박찬용(2019), 『고등학교 화법과 작문』, 서울: 지학사.

### [논저]

- 김미란(2009), 「대학의 글쓰기 교육과 장르 선정의 문제-자기 표현적 글쓰기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작문연구』 9, 69-94.  
김윤경(2015), 「감각적 글쓰기를 활용한 자기표현 글쓰기 교과운영 사례연구」, 『리터러시 연구』 14, 215-242.  
김정란(2014), 「자기 표현적 글쓰기의 비판적 검토와 지도 방향 모색」, 『작문연구』 20, 199-229.  
김준희(2010), 「글쓰기의 치유 과정에 관한 연구」, 『한말연구』 26, 63-86.  
박영민(2015), 「치유적 글쓰기를 활용한 국어교육 방안」, 『청람어문교육』 53, 37-55.  
심선옥(2016), 「대학 교양교육에서 자기표현 글쓰기의 위상과 교육 방법 연구」, 『반교어문연구』 43, 351-381.  
원진숙(2010), 「삶을 주제로 한 자기표현적 쓰기 경험이 이주 여성의 자아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한국어 쓰기 사례 교육 연구」, 『작문연구』 11, 1-28.  
이도영(2013), 「국어과 교육 내용으로서의 '지식'의 성격-김대행의 '지식론'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53, 1-24.  
이소라·류수경(2021), 「쓰기 윤리로서의 '인용' 교육 내용 개선 방안 연구-2015 개정 교육과정과 중학교 국어 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83, 39-67.

- 이수진(2016), 「쓰기치료 기법을 활용한 표현적 쓰기교육 활동」,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1), 539-554.
- 이영호(2014), 「자기 발견을 위한 중등학교 글쓰기 교육의 방향」, 『작문연구』 23, 85-105.
- 이재기(2008), 「작문 연구의 동향과 과제 -작문에 대한 세 가지 가치론적 접근법」, 『청람어문교육』 38, 185-217.
- 이정찬(2017), 「자기표현 글쓰기 교육의 비판적 검토-수사(修辭)와 탐구 그리고 정체성」, 『작문연구』 33, 65-94.
- 최미숙(1996), 「경험의 재구성으로서의 글쓰기에 관한 연구-박지원의 『열하일기』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3, 133-152.
- 최숙기(2007), 「자기표현적 글쓰기의 교육적 함의」, 『작문연구』 5, 205-239.
- 한혜정(2013), 「교육학 연구방법으로서의 자서전적 글쓰기」, 『교육비평』 32, 213-227.
- Britton. J., Burgess. T., Martin. N., McLeod, A., & Rosen. H. (1975), *The development of writing abilities (11-18)*, London: Macmillan.
- Desalvo, L. (2018), 『치유의 글쓰기』, 이미란·김성철(역), 서울: 경진출판(원서출판 1999).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York, NY: W. W. Norton & Company.
- Jones, B. F., Palincsar, A. S., Ogle D. S., & Carr, E. G. (1987), *Strategic teaching and learning: Cognitive instruction in the content areas*, Alexandria: ASCD.
- Kathleen, A. (2006), 『저널치료』, 강은주·이봉희(역), 서울: 학지사(원서출판 1990).
- Pennebaker, J. W. (2007), 『글쓰기 치료』, 이봉희(역), 서울: 학지사(원서출판 2004).
- Pennebaker, J. W. & Evans, J. F. (2019), 『표현적 글쓰기』, 이봉희(역), 서울: 엑스북스(원서출판 2014).
- Pinar, W. F. (1975), "The Method of currere" In W. F. Pinar(Ed.), *Autobiography, politics and sexuality*, New York, NY: Peter Lang Publishing.

## 자기표현적 글쓰기의 교육 방안 연구 — 2015 교육과정과 ‘화법과 작문’ 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윤금준

이 연구의 목적은 자기표현적 글쓰기와 관련된 교육과정과 교과서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자기표현적 글쓰기의 교육 방안을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5차 교육과정부터 2015 교육과정까지, 자기표현적 글쓰기와 관련된 작문 교육과정의 변화 양상을 통시적으로 살펴보았으며, 2015 교육과정 화법과 작문 교과서의 자기표현적 글쓰기와 관련된 내용을 공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자기표현적 글쓰기의 교육 방안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교육과정에서 자기표현적 글쓰기와 관련된 용어와 체계가 명확히 확립될 필요가 있으며, 자기표현적 글쓰기의 과정과 방법에 대한 교수·학습 활동이 구체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자기표현적 글쓰기의 과정이나 방법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자기표현적 글쓰기의 학습 요소를 Jones, et al.(1987)에서의 지식의 유형에 따라 재구조화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치유적 글쓰기로의 확장이 가능한 자기표현적 글쓰기의 교수·학습 모형(ODWH)을 구안하였다. 이 모형은 관찰 → 의미의 발견 → 표현 → 기록의 습관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록의 습관으로 만들어진 쓰기의 결과물이 다시 관찰의 대상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구안하였다.

핵심어 자기표현적 글쓰기, 치유적 글쓰기, 2015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 쓰기 교육

## A Study of the Educational Methods for Expressive Writing

— Focusing on the 2015 Curriculum and an Analysis of Speech and Writing Textbooks

Yoon Keumjoon

This study aims to explore ways to improve expressive writing education by analyzing curriculum and textbook contents that are related to expressive writing. To this end, all curricula related to expressive writing, from the 5th to the 2015 curriculum, were examined.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expressive writing education were explored by examining the aspects of expressive writing in the 2015 curriculum speech and writing textbook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terms and systems that are related to expressive writing need to be clearly established. Moreover, learning activities on the process and method of expressive writing also need to be specifically presented.

In order to present the process or method of expressive writing on a step-by-step basis, the learning element of expressive writing was restructured according to the type of knowledge used by Jones et al. (1987). Based on this, a teaching and learning model (ODWH) was devised that consists of the following steps: observation → discovery of meaning → expression → habit of recording. It was designed so that the result of writing made of habit of recording can be returned to the object of observation.

**KEYWORDS** Expressive Writing, Writing to Heal, 2015 Curriculum, Korean Textbook, Writing Education